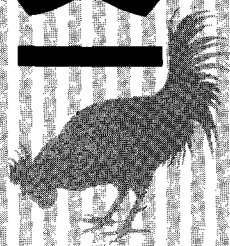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인도네시아

도계장 가동률 30%선에 머물러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양계산업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기전까지만 해도 육계업의 경우 연간 15% 이상의 급성장을 해왔으며 닭고기 소비도 아시아권에서는 비록 낮은 수치지만 1인당 5kg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두배가까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지난해 닭고기 가격이 kg당 4,000루피아(한화 650원)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00루피아(1,560원)로 뛰어 오르는 현상을 보였고 소비량도 반 이상이 떨어진 2.3kg으로 기록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닭고기를 처리하는 도계장 역시 올해 90만 톤의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동률이 겨우 30%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았다. 생산이 50% 감소한 만큼 소비도 50%가 감소하여 수요공급의 균형은 맞추고 있지만 도계장 및 닭고기 생산자들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계란의 경우는 부족한 양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물량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WP)

브라질

엘니뇨에 의한 폐사율 증가

브라질에서는 40년만에 예년 보다 3~4℃ 높은 불볕더위가 찾아와 양계농가들의 큰 적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엘니뇨에서 찾고 있는데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왔다. 따라서 닭고기 가격은 12% 이상 치솟았으며 수출도 정체가되어 수출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감소될 물량은 전체 출하물량의 2%가 줄어 닭고기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10만톤 정도에 해당되는데 브라질의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은 446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WP)

올해 감소될 물량은 전체 출하물량의 2%가 줄어 닭고기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10만톤 정도에 해당되는데 브라질의 지난해 닭고기 생산량은 446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WP)

## 일본

### 채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증가

일본의 농림수산통계정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1일 현재 채란계 10만수 이상 사육농가수는 전체사육농가수 5,290가구 중 6.6%로 지난해에 비해 6.1%가 증가한 350농가로 집계되었으며 10만수 이상 성계사육수수는 전체사육수수인 1억4,525만수 중 47.8%로 지난해에 비해 3.6%가 증가한 6,943만수가 사육되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육농가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1만수에서 5만수미만까지로 전체사육농가수 중 34.8%를 차지한 1,840가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계사육수수는 지난해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농가수수는 330농가가 줄어든 4.9%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鶏鳴新聞)

## 미국

### 계란 재포장 판매 금지 발표

미농무성(USDA)은 지난 4월 계란의 재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발표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해 취해진 것으로 부활절(Easter)을 전후로 미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약 1억개의 계란이 사용후 재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부활

절 직후 포장되어 판매되는 계란이 모 방송국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방영되었는데 이 계란은 산란한지 이미 28일이 지난 계란으로 판명되어 신선도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단이 되었다. 사실 부활절 행사에서는 계란 표면에 형형색색의 물감을 묻혀 행사를 치르는 일도 많아 위생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생산자 단체에서는 30일 이내에 유통되는 계란의 경우는 업자들의 등급규정(AA, A, B)에 맞게 선별, 판매되기 때문에 재포장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鶏鳴新聞)

## 예멘

### 양계업, 중동국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세

중동지역의 양계산업은 각 국가들의 경제, 정치적인 성장과 큰 관련이 있다. 쿠웨이트의 경우 걸프전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양계산업도 회복세에 있으며, 이란은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고, 요르단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남북 예멘이 통일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예멘은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600만이 살고 있는 예멘은 부화장 9곳, 종계농장 9곳, 육계 1,300농가, 채란계 200농가로 비교적 안정되게 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생산량을 보면 닭고기 연간 63,000톤, 계란은 19,000톤이며, 1인당 소비량을보면 닭고기는 1년에 1인당 4.5kg, 계란은 1년에 1인당 47개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사육은 40~55일을 키워 평균 도체중이 1.8kg이며 1년에 평균 3.5회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I)